



## 통합운영 입장문

# 다른 길이지만 같은 곳을 향하겠습니다

우선 오랜 세월동안 차별철폐를 위해 헌신해온 선배 비정규직노조에 대한 무한한 감사와 함께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선배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정규직화를 쟁취하고 비정규직노동자의 권리가 확대된 것에 대해서도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노동조합설립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그간의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 배웠고 설립 이후에도 끊임없이 토론해 왔습니다. 완성차사내 하청은 비교적 근무기간이 길고 정규직과 같이 일하면서 늘 비교당하기에 정규직화 지향이 높다고 배웠습니다. 최근에는 조선산업의 돌발팀처럼 유동성이 높은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정규직화 지향이 낮게 나타난 점도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 악명 높았던 '정규직제로' 모비스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차별과 비교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유롭게 화장실 가고, 아프면 병원 가고, 폭언과 폭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게 최우선이었습니다. 인간으로 존중받고 싶어서, 노동자의 기본권을 누리고 싶어서 노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업체의 벽을 허물고 공장 담벼락을 넘고 지역을 넘나들며 노조를 함께 만들고 연대했습니다. 그렇게 57개의 유명무실한 협력사를 13개로 통합했습니다.

왜 불파소송을 안 하나? 수없이 받은 질문입니다. 말 한 번 섞어본적 없는 판사의 망치질에 웃고 울며, 승자와 패자가 갈렸습니다. 정규직이 되어 떠나는 노동자, 여전히 남아서 투쟁을 이어가는 노동자. 결국 노동조합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노동조합과 우리의 삶을 법에 힘에, 판사의 망치질 몇 번에 맡기고는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판사의 망치질이 아니라 우리의 팔뚝질을 믿었습니다. 매일 만나는 동료들 믿고 노동조합으로 단결하니 우리도 힘이 생겼습니다. 전국적으로 연대하니 그 힘은 더 커졌습니다. 협력사는 물론이고 그토록 오만하던 모비스도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존중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도 못하고 우리 앞에 나와 우리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비소송-자력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민주노조 안에서 정규/비정규직으로 나뉘어 때로는 폭력 사태로까지 이어진 사례를 들었습니다. 단결만이 살길이라고, 노동자가 살길이라고 배웠습니다. 자본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분열해서 지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그래서 노동자계급 내부의 분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규직노조의 고용불안 소식에 기꺼이 핵심물량을 이관했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일터를 잃은 비정규직노동자들과 망설이지 않고 한 식구가 됐습니다. 고용연대/물량연대를 통해 비갈등-상호존중의 길을 계속 가고 싶습니다.

헌신적인 선배들의 투쟁정신. 그간 비정규직운동에서는 분신, 자살, 고공농성, 장기투쟁들이 있었다는 역사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감히 짐작하고 평가할 수 없는 숭고한 투쟁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들은 좀 더 많은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는 비극단, 우리에게 맞는 적정투쟁의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이제 다시 13개의 공장별 협력사를 통합하여 3개의 통합회사를 만들어 노동자 간 격차를 줄이고 권리를 높이고자 합니다. 숭고한 투쟁정신으로 차별철폐를 위해 헌신한 선배들의 길과 사뭇 다르게 보일 수 있고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 치열한 토론과 고뇌를 통해 선택해온 길입니다. 선배들의 길을 존중합니다. 우리도 존중받고 싶습니다. 산은 흙과 나무를 가리지 않고 품으니 그토록 높고 푸르며, 바다는 어디서 오든 그 물줄기를 가리지 않으니 넓고 깊다고 했습니다. 길이 다양할 때 우리는 더욱 강하고 더 많이 뭉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길은 다르지만 우리가 향하는 곳은 어차피 하나입니다. 노동자가 존중 받는 세상,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동조합 할 수 있는 세상, 노동자의 권리가 가장 보편적인 권리가 되는 세상. 모듈부품사연대도 그 길에 언제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차별철폐에 헌신해 오신 민주노조의 모든 선배 노조와 선배 노동자들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 08. 26



현대모비스 모듈부품사연대 미래차위원회